

[보도자료]

이 자료는 2012년 6월 28일(목)에 배포되었습니다.

지역여성정책의 새로운 모델, 여성친화도시가 뜬다

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친화도시 사업 관심 확산위해
제1회 여성친화도시 포럼 개최

취재 및 보도를 요청합니다.

배 포 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배포 날짜 : 2012년 6월 28일(목)

보도 날짜 : 2012년 6월 28일(목)

언론담당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홍보담당 황 애 리

(연락처: 02-3156-7296, 이메일: aeri2008@kwdimail.re.kr)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최금숙)은 오는 6월 29일(금) 오후 2시에 부평구 아트센터 세미나실에서 제1차 여성친화도시 포럼을 개최한다.

제1차 여성친화도시포럼 개최



- ☐ 일시 2012년 6월 29일(금) 14:00-17:30
- ☐ 장소 부평구 아트센터 세미나실(2층)
- ☐ 주최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 후원 인천광역시 부평구

- 여성친화도시는 지방자치단체, 각계 전문가, 여성단체, 지역주민 등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 간의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추진해 나가는 지역여성정책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 2012년 현재 30개의 기초자치단체가 여성가족부와 협력을 맺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 이에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각계의 관심과 이해를 확산시키고, 여성친화도시 사업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자 2012년 권역별 여성친화도시 포럼을 총 4차례 개최할 예정이다.
- 제1차 여성친화도시 포럼은 2011년 말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인천광역시 부평구에서 열린다.
- 강미선 이화여자대학교 건축학과 교수가 “돌봄 공유를 위한 주거정책의 방향과 사례”를 주제로, 박신연숙 좋은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 사무국장이 “성폭력 없는 안전한 마을 만들기 : 상도3,4동의 우리 동네 평화인권축제 사례”를 주제로, 김인선 여성이 만드는 일과 미래 대표가 “여성 일자리와 사회적 기업 : 지역사례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하며,
- 천현숙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신경아 한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오은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승희

부평신문 편집국장, 성미경 부평구 여성친화도시협의체
위원, 윤동환 부평구 여성가족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 최금숙 원장은 “이번 행사가 여성친화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아이템 발굴에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행사의 개최의의를 밝혔다.

붙임 1. 발표 주요내용

2. 프로그램

붙임 1. 발표 주요내용

돌봄 공유를 위한 주거정책의 방향과 사례

강미선(이화여자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근대이후 도시로의 급격한 인구유입은 핵가족 중심의 주거를 양산하였고 주거지와 일터를 분리한 근대적 도시계획 기법은 한 마을이 담당하던 공동체적 돌봄의 기능을 가구내 한 여성에게 부과하는 결과를 낳았다. 최근 신자유주의 물결에 따라 2인 생계부양 가구의 증가와 함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심각한 돌봄의 공백으로 이어지고, 여전히 여성의 몫으로 전가되어 있는 돌봄의 부담은 결혼 및 출산기피로 이어져 장수명화에 따른 고령화 흐름에 급속한 가속화를 야기시키고 있다.

이에 우리는 근대에서 버린 마을을 다시 찾아야 한다. 집의 근본적인 존재가치인 돌봄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이웃이 함께 연대하여 공동체성을 강화하고 돌봄이 공유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토대인 물리적인 공간, 즉 도시와 주거지, 집을 만드는 방식의 패러다임이 전면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물리적 공간의 편의성 뿐 아니라 도시와 주거지를 만드는 최상위 정책 및 계획에서부터 여성친화적인 기법이 도입되어야 돌봄공유의 개념이 실현될 수 있다.

시설녹지로 둘러싸인 단절된 아파트단지가 아니라 공동체의 자연스런 감시의 눈길이 형성되어 밤길에도 불안하지 않고 아이들이 이웃의 자연스런 보호의 시선으로 돌보아지는 주거지가 만들어질 때 모두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질 것이다. 이런 물리적인 기반은 자연스런 공동체성의 확보로 이어지고 이러한 사회적 자본은 고령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사회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다. 개별주거의 지나친 완벽함과 프라이버시 확보를 어느 정도 포기할 때 더 나은 공동체문화가 형성된다는 점도 인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도시와 건축에 있어서, 주거공간의 성형평성은 돌봄의 문제를 떼어 놓고는 말할 수 없으며, 공공주택정책은 돌봄의 공백을 극복하기 위해 ‘돌봄공유’라는 목표를 지향하는 다양한 정책적 방법들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다. 돌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돌봄을 사회가 책임져야 할 중요한 성형평성의 문제로 인식하고, 주거정책 차원에서 돌봄의 사회화와 돌봄공유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 없는 안전한 마을 만들기 : 상도3,4동의 우리 동네 평화인권축제 사례

박신연숙(좋은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 사무국장)

도시 속 소외된 공간을, 서로 만나 소통하는 마을로 만들고 여성들 스스로 일상적 실천을 하면서 마을에서부터 세상을 바꿔나가고자 하는 ‘좋은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약칭 ‘좋은 세상’) 이 있다. ‘좋은세상’에서는 주민의 힘으로 안전마을을 만들어가는 활동이 한창이다.

마을의 아동, 청소년, 어른들이 다 같이 모여서, 동네한바퀴를 돌면서 우리 마을이 얼마나 안전한지 직접 느껴보고 체험한다. 일상에서의 평등한 관계와 인권에 대해 성찰한다. 유치원, 초등학교 밀집지역의 약국, 편의점, 문구점 등 ‘아동안전지킴이집’도 들어서 적극적으로 관계를 형성한다. 어린이집, 학교, 주민자치회관, 경찰지구대와도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마을 여성들의 역량을 키워내 학교에서 여성주의 성교육 활동을 하고, 수업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방과 후에 마을공원에서 ‘마을 속 비폭력 배움터’를 열고, 동네 꼬마들과 함께하는 안전마을 자원 활동을 한다. 공원에서는 매달 한번 즐거운 마을배움터가 열린다.

작년 7월엔 민간주도로 ‘아동,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를 발족했고 마을에서 20여군데 기관, 30여명이 참여하였다. 이후 두 달간 총8회에 걸쳐 젠더감수성향상교육을 실시하였다. 10월 7일엔 제1회 우리동네 평화인권축제 ‘지키자데이’를 개최하였다. ‘지키자 데이’ 축제는 ‘지역연대’ 참여자들과 지역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행사를 만들어 갔다는 데 의의를 둘 수 있다. 축제 제목부터 주민들에게 공모하여 선정하였으며, 모두가 역할을 나누어 맡아 행사를 진행 하였다.

이렇게 이웃과 더불어 지역사회 차원의 협력을 높여나가면서,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좋은세상’ 주민들이 활동하는 마을(동작구 상도3,4동)은 정부에서 2011년 상반기 ‘아동,여성안전지도’를 시범제작한 지역이다. 정부와 연구자, 주민의 참여하에 안전지도를 제작한 결론이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마을은 ‘사람의 변화’와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가 대안이라는 것이다. 안전지도를 만든다고 해서 성폭력 없는 마을이 되는 것이 아니다. 안전지도 만들기가 지역사회 주민들이 함께 안전마을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될 때 의미가 있는 것이다. 직접 참여하고 실천하며 몸과 마음으로 느끼고 배우는 과정에서 주민 의식변화와 주체 형성이 이루어지고, 마을의 실질적인 안전망을 만들어가게 될 것이다.

여성 일자리와 사회적 기업 : 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김인선(여성이 만드는 일과 미래 대표)

고용 없는 성장시대, 경력단절을 낳는 여성의 경제활동 특성상 현재의 기업문화 및 노동시장 구조 안에서 여성의 취업 확대를 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런 점에서 사회적 기업을 포함해 최근 주목받는 마을기업, 지역공동체, 협동조합은 안정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접근이다.

특히 사회적경제가 여성에게 친숙한 생활밀착형 경제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그러나 사회적 기업은 일자리를 바라보는 시각과 일자리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한다.

발표를 통해 소개되는 지역사례는 사회적 기업(마을공동체사업)이 지역 내 다양한 분야 간의 커뮤니케이션과 협력을 통해 어떻게 여성의 일자리를 늘려나가면서 여성이 지역공동체를 재구성해 가는데 주체적인 구성원으로 성장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던진다.

붙임 2. 프로그램

<프로그램>

13:30-14:00	등 록	
14:00-14:20	인사말	사회: 문유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친화정책전략단장 최금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이기순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
14:20-14:30	환영사	홍미영 부평구청장 신은호 부평구의회 의장
14:30-14:40	동영상	여성친화도시 홍보 동영상 상영
14:40-15:40	주제발표	·주제1 돌봄 공유를 위한 주거정책의 방향과 사례 강미선 이화여자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주제2 여성 일자리와 사회적 기업 : 지역사례를 중심으로 김인선 여성이 만드는 일과 미래 대표 ·주제3 성폭력 없는 안전한 마을 만들기 : 상도3,4동의 우리 동네 평화인권축제 사례 박신연숙, 좋은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 사무국장
15:40-15:50	휴 식	
15:50-16:50	토 론	천현숙(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신경아(한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오은진(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승희(부평신문 기자) 성미경(부평구 여성친화도시협의체 위원) 윤동환(부평구 여성가족과장)
16:50-17:30	질의응답 및 폐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국책연구기관이다. 현재 한국의 여성정책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여성정책 및 여성 능력 개발, 여성 연구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복지 증진과 가족 그리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법령, 정부정책 등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분석을 하고 정부예산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을 하고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1983년 개원한 여성정책 전문연구기관으로서 2007년 5월 한국여성개발원에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으로 기관명을 바꾸고,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여성정책 Think-Tank 역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